

“행정통합은 특별시급 지위” 김영록 지사, 지역민 설득 나서

도의원 의원총회 참석 주민설명회
주민투표 아닌 도의회 동의로 추진
2월까지 시·군·구 순회설명회 개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도의회와 지역민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주민들의 대의 기관인 전남도의회 의원들 앞에 직접 나서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주민투표가 아닌 도의회 동의로 못 박고 다음달까지 전남 22개 시군은 물론 광주 5개 자치구를 찾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의원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일단 9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지역국회의원 간담회를 지켜본 뒤 18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민간공항 공공형 통합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전남 상

생의 물꼬가 트였고, 정부가 부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과감한 재정 행정 권한 인센티브를 받아 AI 에너지 수도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통합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 기본 골격을 빨리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앞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 민관 합동 실무기구로 두고, 자문기구로 많게는 500명 규모의 광주·전남 범시민단 행정통합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기본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관건은 특별법 제정 시기라면서 민주당이 1월 16일 법안 발의 후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함께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 이후 다음 주 경 도의원들과 만나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오는 2월까지 시·군·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가뭄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른 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동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도의원들에게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22개 시군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석수 역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도의원 의석수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조정하겠다는 건 통합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지방선거에 (시도의원 의석수는) 현행 선거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법에 담아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도 올 가을이 통합의 가장 좋은 시기”라며 “과거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을 유치한 바 있어, 통합을 통해 이에 준하는 큰 행정공공기관을 유지하는 데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 시·도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불거진 우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소를 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통합으로 조직권을 부여받고 필요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중복 우려 해소가 가능해 공무원들의 불안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내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영록(오른쪽)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목포·무안·신안 통합도 병행해야

주민연대, 전남 소지역간 통합 건의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전남 소지역간 통합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목포무안신안 선(先)통합 추진 주민연대’는 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함께 ‘목포무안신안 통합’도 병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남 서부권으로 분류되는 목포와 신안, 무안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본격적인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라며 “광역 행정통합과 함께 목포와 무안, 신안의 통합을 병행해 지역 30년 숙원인 ‘무안반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와 광역자치단체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여년 전부터 지속됐왔다. 2023년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자치단체장 임지자들 도 통합 ‘카드’ 꺼내들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세 지역 주민이 무안반도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대규모 혜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 서부권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신안군의 ‘햇빛연교’과 무안군의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따른 정부 혜택, 전남 대표 도시인 목

포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소멸 탈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발판으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해 AI데이터센터, RE100산단단지 유치,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혁신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계기로 3개 지역 기초의회 등의 혹은 주민동의를 거쳐 통합이 가능한 법제도를 선행적으로 마련해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출범에도 3개 지역 주민들의 힘과 역량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이어 전남 교육제도 통합 한목소리

김영록 전남지사·김대중 교육감
‘교육 대전환 공동 선언문’ 발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원팀으로 뭉쳤다. 전남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통합 협력 선언에 이어, 전남에서도 행정통합에 교육계가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가정)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은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에 깊이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공개된 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실천 조항이 담겼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단순한 협조를 넘어 통합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이 명시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구성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형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무적인 법안 마련에도 공동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인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교육 자치와 연계된 정밀한 제도 설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교육감의 지지와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교육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의 탄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거대한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만큼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이룬다면 교육 분야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와대에 쏠린 눈

▶1면에서 계속

이 모든 계획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시도는 1월 중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초단기 스케줄을 잡고 있다.
물리적으로 2월 통과는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능에 가깝다. 이번 9일 회동에도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으로서 특별법 통과를 결의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어야 한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번 회동에서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달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21세기에 딱 맞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

국내 유일 렌탈사 등록 전자교과, 전자철판

1억원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120251388541
정액인 만증-제2024-089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교, 정부기관, 군부대(교실, 강의실, 회의실)

▶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강당, 강의실, 회의실)

▶ 대기업, 삼성, 엘지 등(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업의 강점

▶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 대기업

▶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

▶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한 장기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

▶ 지역 기반 총판 운영으로 경쟁 부담 최소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원하는 분

▶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사업을 찾는 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교육기관, 공공기관, 군, 종교, 중심의 렌탈 및 조달시장은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지금 참여하시는 분께 지역 우선권이 제공됩니다.

엠케이솔루션(주)
연락처 : 010-2366-8843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대출공고)

주식회사 창해전기(이하 “갑”)와 주식회사 안전솔루션(이하 “을”)은 2026년 01월 08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인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갑” 주식회사 창해전기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척로 4, 3층
대표이사 황 성 진

“을” 주식회사 안전솔루션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로 278(백전동)
대표이사 안 성 연

자본감자 및 주권대출공고

본 회사는 2026년 01월 0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910,000,000원 중 금 800,000,000원을 감자하고 자본금 금 11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8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총수 91,000주를 11,000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주식회사 강산이앤씨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5길 1, 3층(학동)
대표이사 박 창 길

분할합병 및 주권대출공고

주식회사 아를전력(“갑”)과 주식회사 프로텍크는 2026년 1월 7일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하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6년 1월 9일

“갑” 주식회사 아를전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15-7
대표이사 박 민 희

“을” 주식회사 프로텍크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57길 33 (대양동)
대표이사 양 하 연

발전자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발전자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3.8MW (99.28M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5. 5

3. 사업운영기간 : 2025. 5 ~ 2049. 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5. 10. 30. ~ 2025. 11. 10. 까지 전남 목포시 마항로 191-4 (2층) 일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나, E-mail : llyang00@daum.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자명 한빛(388)태양광발전소

신원인 김 미 숙

용역명 90.28

발전자 위치 및 면적 전남 나주시 왕곡면 월전리 18-14, 18-13, 18-12 (1147㎡/3214㎡)

*이 공고는 2025.5.26. 광주일보에 기재되었던 공고내용을 한빛(388)태양광발전소 김용7 지사의 명의로 변경으로 재공고 함-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읽는 데 74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